

국가 형제회 간부 평의회로부터의 뉴스

2019 년 - 2021 년 국가적 우선순위

2018 년 지부모임에서, 국가 형제회 평의회에서는 2019-2021 우선 순위가 무엇일까를 논의했습니다. 많은 제안들이 발표되었고, 어떤 것은 몇번이나 거론되지만 어떤 것도 최우선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삼년의 임기동안 국가형제회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형제회 간부 평의회 합의점의 본론이었습니다. 국가형제회 간부 평의회에서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12 월 13 일부터 16 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기쁘게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동안 우리는 늘 기도하며 우리 국가회의 가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국가형제회 각 지부의 피트백을 함께 숙고하다보니 무엇을 우선으로 결정해야하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년간은 국가형제평의회에서는 6 가지 우선 순위를 정해놓았었지만, 올해는 좁혀서 한가지, **형제회 삶**, 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활기찬 형제회의 삶을 조성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결코 그 전의 우선순위가 무시되거나 등한시 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성교육, JPIC, 소통, 영적 지원은 지역 형제회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기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회 삶을 선택한 결정은 경이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명제를 최우선으로 정한지 몇주가 지나서 우리는 국제 형제회의 의장, 타이보 카우저에게서 성탄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조건없이, 반복해서, "네" 라고 응답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 하느님께 "네", 우리 성소에 "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네" 라고 답하라고.. 그는 " 이것은 또한 우리 형제회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입니다" 라고 세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 우리는 세가지 형제회 삶의 측면을 강조하자고 결정했습니다.

2019-2021 국가적 최우선 사항

형제회 삶

1. 프란치스코인으로서의 소명이 깊어지게 한다.
2. 형제적인 교감안에서 성장한다.
3. 보편적인 연대감을 일궈낸다.

우리가 몇가지 수단(헌신, 회심, 소통)을 반드시 사용하여 우리 형제회들이 거룩함 안에서 성장해 나가도록 애쓰는 동안, 하느님과 우리 재속회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하느님의 이미지와 닮은점 안에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깊이 생각해 봄직한 주제가 될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들의 영적 실체와 우리 형제회의 목적에 대해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 안팎의 여러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회를 필요불가결한 우리 성소의 한부분으로 보기 보다는 다른 모임의 하나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본 문헌을 살펴봅시다. 어떻게 형제회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헌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8.1 조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는 형제적인 교감안에서 필수적인 복음적 삶의 질을 드러낸 가장 높으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감에 그 근원을 두고있음을 발견한다. (회헌 3.3 참조(밑), 증거 14)

3.3 조 . 프란치스코 재속회의 성소는 형제적인 교감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성소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재속회 회원은 형제회라 불리는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모여야 한다.

100.3 조. 자신들의 각자의 신앙적 성향 (프란치스칸 적, 세상적) 에 충실하여, 진심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형제회를 만들어 가는것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는 것은 공동체의 사랑인 교회를 위한 주요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볼 포인트:

- 형제회는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성인에 의해 비롯된 것이고 그것의 필수적인 복음적 질이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성인에게 드러내어 보여진 것입니다.
- 우리는 그저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형제적인 교감안에서 살아갑니다. 형제적 교감은 그리하여 우리 소명의 본질적인 요소의 하나로 정의됩니다.
- 회헌은 형제회를 만들어가가는 것을 우리 프란치스칸의 임무인 “새로이 교회를 세움” 과 연결시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수도회로서 교회를 위한 주요한 봉사들 중의 하나를 가르키는 용어가 됩니다. 우리의 서원시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노력을 바칠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역 형제회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라는교회의 보이는 표시입니다. 함께 우리 모든 회원과 여러분은 형제회를 진실된 교회적인 모임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프란치스코 공동체로 만드는 것에 여러분의 노력을 바칠것을 선언합니다. [서원의 의식, 프란치스코 재속회의 예식]

만약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한다면, 만약 우리가 반쪽의 성의를 가지고 일한다면, 만약 우리가 형제회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서원을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칼라노의 토마스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형제들은 다른 이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기뻐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 즉시 네 명의 선하고 건강한 남자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의 추종자로서 그들에게 합류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의 형제들은 신앙이 깊은 이가 하느님의 성령에 이끌려 와서 거룩한 종교의 습관을 받아들였을때 그가 누구든지간에, 부자건 가난한 이건, 귀족이든 아니든, 지혜롭든 단순하든, 성직자이든 문맹이든 상관없이 크게 기뻐하고 유별한 환희를 느꼈다. 이것은 세상사람들에게 큰 경이로움이었고 겸손함의 표본으로 그들이 새로운 형태로의 삶과 죄에 대한 보속의 삶에 도전을 주었다.” (1 카라노 31)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회를 방문했을때 “큰 경이로움을”을 느낍니까? 어떤 종류의 표본을 봅니까?

- “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했지만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일 돌이 되십시오.”
베드로의 첫째 편지 2:4-5a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발간될 타우 미국편을 기대하시고요. 국제형제회의 웹사이트, secularfranciscansusa.com 방문하셔서 올해의 촛점에 관한 더 많은 성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